

제명통지서

2024년 5월 10일

한연성 귀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

심사 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 65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외 8인)를 구성했음.

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4월 27일과 5월 5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 낙스 명예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

징계 결정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

징계 사유

한연성씨는 이기훈 씨와 함께 직위 사칭으로 협의회 거래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 낙스 자금(\$47,510)을 탈취했음. 이는 반사회적 중범죄일뿐만 아니라 현 낙스의 재정을 고갈시켜 집행부 운영을 마비시킨 치명적 업무방해 행위. 아울러 낙스의 명예 실추 및 회원교 대표들을 기망한 행위이며 나아가 은행에는 재무담당자인양 서류를 제출하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현재는 반낙스측 사무총장을 맡아 회원교를 혼란에 빠뜨림.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1. NAKS 거래은행 대상 사기행위

추성희 총회장과 홍은정 재무만이 결재자로 등록되어 있는 낙스거래 은행(Wells Fargo)에 마치 이기훈과 한연성 자신들이 새로운 대표자인양 허위서류를 제출(NAKS CEO Kihoon Lee & 동반 서명자 한연성 Yeon Sung Seo). 당시 이기훈 씨는 반낙스측 이사장(Chairman)이었음에도, Chairman 이라고 등록하지 않고 협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CEO란 직책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은행을 속이기 위한 사기행위. 한연성 씨는 이러한 사기행위에 적극 동조. 결국 은행은 추 총회장과 홍 재무를 삭제하고 이기훈 한연성을 등록시키는 실수를 범함.

2. 낙스 공금과 직지재단 사업비를 포함한 총 \$47,510 탈취한 범법 행위

허위서류로 은행을 속인 후 은행 잔고 (직지재단 후원금 5 천 1 백불 포함) 총 4 만 7 천 5 백 10 불을 탈취함.

- 증거자료: 2024 년 4 월 9 일자 이메일

-끝-